
사업계획서

농작 코칭 애플리케이션 Farm-Together

팜해커톤 X INU

Design Thinking 해커톤

날아라 붕붕아 팀 강은선, 노승범, 송병준

파머스 체험가든 양상국 대표님

2019년 6월 30일

팀 소개

안녕하세요. 저희는 “날아라 봉봉아” 팀입니다. 저희 팀은 세 명의 컴퓨터공학 전공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자 문제를 찾아내어 개선책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전공이 같아 자칫 신선하지 않을 것 같지만 배경과 성향이 모두 달라 함께 모였을 때에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서론

경제가 발전하고 도시화가 급속화됨에 따라 농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이는 계속 심화되어 젊은 층에서 농촌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대해 무관심한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 각지에서 운영중이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단발성이며 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바쁜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도시인을 농촌과 친해지게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도시인이 농업 생산자의 도움을 받아 집 또는 집 근처에서 쉽게 스스로 간단한 농사를 진행하도록 도움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거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젝트 개요

지식을 나누고 싶어하시는 농부님과 노하우가 필요한 소비자를 잇습니다.

농작 베테랑과 함께 키우는 작물

식물을 키우려고 하거나 농사를 마음먹었을 때에,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뉴얼화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된 농작 노하우, 그리고 농부 선생님의 도움과 함께라면 농사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실시간 조언

논이나 밭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물론이고, 집에서 작은 식물을 키우는 것에도 때가 있는 법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일을 수행해야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습니다.

*Farm Together*는 농사에 필요한 조언들을 실시간으로 전달해줍니다. 잘 정리된 농작 매뉴얼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며, 궁금한 것이 생기면 농부님께 직접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자동 안내

농부님은 소비자에게 일일이 조언이나 지시사항을 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작에 필요한 지식들이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소비자가 별도로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을 때에 실제로 1:1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혼자서 하는 일은 금방 흥미를 잃고 지치기 쉽습니다. 식물을 키워내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하여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작 활동에 대한 동기를 꾸준히 부여합니다. 도시인과 농업인 모두 참여하는 지역 농업 커뮤니티로서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프로젝트 상세

서비스 사용 흐름

소비자가 농가로부터 모종 또는 씨앗과 함께 식물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간단한 도구가 들어있는 패키지(이하 키트)를 구매하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등록합니다. 코칭이 시작된 시점부터 농작에 필요한 지시사항 알림이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됩니다. 만약 식물의 상태가 이상하거나 먼저 궁금한 점이 생길 경우 생산자와 실시간 메시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는 여러 소비자와 동시에 코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키트를 구매하여 연결하면 생산자의 애플리케이션에 나타납니다. 생산자는 지시사항을 매번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농작 매뉴얼에 기초하여 자동으로 소비자에게 지시사항이 보내집니다. 소비자가 문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1:1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

도시에 사는 A씨는 집에서 상추를 직접 재배하고자 결심합니다. 이전에 화분에 여러 식물을 키우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떠나보낸 뒤인지라 막막함이 앞섰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고 싶지 않는데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파머스 체험가든의 Farm Together 애플리케이션을 알게 됩니다.

바로 키트를 구매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등록하자마자 반가운 인사와 함께 식물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의 일정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씨앗을 심는 방법이 안내됩니다. 이를 잘 따라서 심습니다. 다음날이 되자 흙의 습도를 포함해 환경이 적절한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전달됩니다.

상추의 본 잎이 몇 장 나올 무렵, 밭에 이식하라는 조언이 전달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쓴 맛이 강해진다는 조언에 따라 물도 잘 주며 정성스레 기릅니다. 파종 60일 무렵이 지나 수확할 때가 됩니다. 한장한장 따서 잘 씻어서 저녁식사로 맛있는 상추쌈을 만들어 먹습니다. 뿌듯해서일까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수익 모델

초기에 모종 또는 씨앗과 함께 식물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간단한 도구가 들어있는 패키지(이하 키트)를 판매하여 수익을 달성합니다. 사용자는 구매시에 초기 비용을 지출하고, 이 수입의 일부는 앱을 운영하는 데에 사용되며 나머지는 생산자에게 분배됩니다. 수익 분배는 활동가에게 10%, 생산자에게 90%로 나누어집니다.

기대 효과

농업에 생소한 도시인들이 생산자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에 힘입어 직접 식물을 길러내는 경험을 함으로써 농업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생산자가 직접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오는 거부감을 없앨 수 있어 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는 추가적인 수고 없이 자신의 전문 지식을 나누면서 별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팜메이트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7월 16일 오후 2시에 파머스 체험가든에서 간단한 아이디어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